

멕시코 선교 동역자님들께 올립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은 기쁨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곳 멕시코도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과 6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 동안 380여만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9만여명이 사망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배가 넘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당들은 문을 열었고, 백화점이나 슈퍼등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사람들은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민족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몇가지 선교보고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신학교와 성경학교

저희들이 섬기는 두 교육기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 정부가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션마다 한 주일씩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숙식을 함께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걸려서 이곳까지 도착한 저들을 8시간 강의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저들에게는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보지만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들을 지역별로 보내어서 모임을 가져보지만 그것 또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속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교재들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신학생들을 위해 매주 중요한 이슈들을 칼럼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사역

지금까지 저희 미션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는 109개 교회입니다. 멕시코 시티, 뿌에블라, 미초아칸, 베라크루스, 모렐로스, 툴락스갈라, 게레타로, 오아하카 주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교회가 넘어져서 위트니스 리 계통의 이단으로 떠난 아픔이 있었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자립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립의 비결은 처음부터 100% 이양하고 개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마을에 일꾼을 파송해서 3개 정도의 셀을 만들고 일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것을 합하여 한 교회를 세웁니다. 저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 자신들이 헌금해서 땅을 사고, 자신들이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고, 자신들의 법인에 등록케 함으로써, 선교사나 파송단체 또는 파송교회와 독립된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방법으로는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의존적인 교회로 남아 있다가, 선교사가 물러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우리가 보았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도한 개혁의 방법은 저들이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력으로 일어서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였던 네비우스 방법의 선교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자립하였던 한국교회가 그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예배당 건축

저희들이 멕시코에 온 이후 지난 20년간 1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예배당 가운데는 200미터제곱(60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부터 1,800미터제곱(550평) 정도의 큰 규모의 예배당도 있습니다. 송고숫플라의 '풍성한 생명' 교회는 미화 약 90만 불 예산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디서 그리 많은 돈이 후원되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몇몇 교회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부 후원하여 건축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헌금하여 자재를 사고,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당을 짓는데 선교사가 깊이 개입하면 안됩니다. 다만 저는 엔지니어 경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면을 만들고, 시공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사야할지를 지도해 줌으로써 시공회사나 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1/3 정도의 예산으로 예배당 건축을 완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세월에 그 누구에게도 능동적으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헌금하고자 하면 연결시켜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전체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자립을 목표로 선교할 때, 선교단체나 교회가 너무 쉽게 예배당을 건축해주면 그만큼 자립은 늦어집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할 때라도 쉽게 선교사가 개입하면 안됩니다.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도 힘들면 선교사가 약간의 도움을 주면 매우 고마워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팀 보강

이지민, 김예은 부부가 저희들의 선교지에 올 것입니다. 저들은 그동안 선교훈련을 마치고 지난 7월에 멕시코 선교사로 허입되었고, 이 선교사는 지난 10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내년 2월 경에 파송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팀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고, 정보를 나누고, 돕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역을 아름답게 바톤 터치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소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사위 곽한영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박사(Ph. D) 과정을 마치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졸업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MA과정, 복음대학교 M. Div 과정, 중부 침례교 신학교의 M. Div 과정 등의 학생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녀와 여섯 손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FACE BOOK 계정 : 최승열

카카오톡 아이디 : pueblachoi

전화 : 52-221-127-9326

2021. 11. 11

멕시코 선교사 최 승열/ 강 은희 드림